

김원영

두산인문극장 2022: 공정
수어/문자/음성 안내
(아래 QR 코드 통해 확인 가능)



‘사랑’과 ‘공정’은 도대체 만날 수나 있는 개념일까? 우리는 일상에서 우정이든 사랑이든, 누군가를 친밀한 관계의 대상으로 선택함에 있어 누구보다도 차별적으로 행위한다. 우리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조건과 속성 등을 따져보는데, 그것은 공정함과 거리가 멀다. 그런데 그런 행위에 대해 주로 개인적인 비판을 하지 공적인 담론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다. 사랑이란 서로에게 모든 기회와 에너지를 쏟아 부을수록 더 뜨겁다(로맨틱한 사랑이 특히 그렇다). 사랑은 본래 차별적인 관심이다.

주요 논의내용

- 사랑과 공정함
- 공정을 위한 척도의 재구성
- 탁월함에 대한 사랑

SF 작가 테드 창이 소설 “외모지상주의에 관한 소고”에는 인간이 서로의 몸(얼굴)을 무차별하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기계 ‘칼리그노시아(칼리)’가 등장한다. 어느 학교에서 모든 재학생에게 칼리 착용을 의무화하는 학칙 개정안을 투표에 붙이자 이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칼리를 착용하면 서로의 내면적 가치에 집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칼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칼리에 의존해 몸의 차이를 간단히 소개하려는 전략은 미성숙한 대응이라고 주장한다. 외모가 특별히 아름다운 사람의 존재를 바라보는 일도 가치 있는 경험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소설 속에서 아름다움은 ‘공정’과 대립하지만, 하버드대학교의 일레인 스캐리는 공정함에 대한 우리의 심리적 반응이 우리가 아름다움을 지각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대체로, 적당하게 비례적이고 대칭적인 사물이나 인간을 바라볼 때 편안하고 아름답다고 느끼듯, 공정에 대한 감각 역시 비례성과 대칭성에 대한 우리의 감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비례적이지 않은 상황’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데(예를 들어,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연습을 게을리하고도 열심히 연습한 사람보다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경우), 그 불편함은 우리가 비례적이지 않은 것을 바라볼 때 느끼는 어떤 심미적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정함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fairness’는 유럽어에서 ‘아름다움’이나 ‘어울림’을 의미하는 어근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에 비추면, 우리가 적절한 비례성에 대해 느끼는 안정감이나 쾌감은 아름다움과 공정함이라는 두 가치 모두의 근거일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 헌법의 평등원칙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만을 금지한다. 이러한 ‘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비례성을 심사한다’고 표현한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 각각의 자격에 비례하여 차등대우를 하는 것이 자유주의 헌법의 평등원칙에서 근간을 이룬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 국립발레단이 공연 오디션 공고를 내면서 ‘키 170cm이상, 신체 건강한 무용수’라고 자격요건을 내 걸었다. 이 지원공고를 우연히 본 장애를 가진 사람이(그는 장애로 인해 직립하여 보행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하자) 지원서를 냈고 국립발레단은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서류전형에서 탈락을 통보했다. 이것은 차별금지법에 반할까? 이러한 대우는 ‘공정’하지 않은가?

국립발레단의 조치는 몇 가지 점에서 따져볼 소지(오디션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 오디션 자격의 모호성 등)는 있지만 발레 공연의 주요 레퍼토리를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이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바꾸어 말하면, 용인되는 ‘공정한 차별’이라는 뜻이다.

김원영

변호사/공연예술가. 대학에서 사회학과 법학을 공부하고 로스쿨을 졸업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법인 텍스 등에서 일했다. <사랑 및 우정에서의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인정투쟁: 예술가 편>, <무용수-되기> 등의 공연에 출연했다. 지은 책으로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희망 대신 욕망』, 『사이보그가 되다』(공저)가 있다.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 판사가 있을 수 있을까? 지금은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 적이 있었다. 1982년에 사법연수원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도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는다는 이유로 판사에 임관되지 못한 지체장애인이 있었다. 대법원은 판사라는 사회적 지위에 요구되는 신체적 '품위'를 이유로 들어 장애인 법관의 임용을 거부했다.

시각장애인 판사는 IT 기술의 발전과 시험제도에 있어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2000년대 중반 등장했다. 한편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사법부는 시각장애가 있는 판사가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보조인력, 사건자료의 디지털화, 업무시간 조정 등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편의 제공이 능력에 '비례하여' 자격을 배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법관(판사)의 역량은 사건을 특정 시간 동안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만 있을까? 우리는 법관의 자격을 동질적인 환경에서 개인이 보여주는 기능적 수월성이 아니라, 한 사람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특정한 환경을 조성한 가운데서 발휘되는 무엇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시각장애가 있는 법관은 특정한 환경 속에서 다른 법관들과 유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거나, (지나친 낭만화는 경계하더라도) 비시각장애인 법관들이 하지 못하는 추론과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발레와 같은 예술의 영역에서는 어떨까? 사법부라는 업무현장보다 훨씬 더 폭넓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발레라는 제도의 전통을 변화시키고, 필요하다면 과감히 해체하고, 발레적 기교와 탁월함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것이다. 시각장애인 판사가 사법부에서 활약할 수 있듯이, 국립발레단에서 활약하는 '견지 못하는' 발레리노가 탄생하기를 기대할 수 없을까? 과감하게 기존의 물을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공정의 기준'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공정의 기준을 과감하게 재구성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상상하면서, 다시 사랑이라는 주제로 돌아오자. 우리 모두가 모든 분야에서 탁월함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진다(즉 공정의 기준이 충분히 다원적이라면) 모두가 각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다는 믿음이 지배적인 시대에는, 탁월성이란 무엇인지가 의문에 부쳐질 수도 있다. 이런 사회는 특정한 탁월성을 절대시하고 인간을 그 아래에 줄세우는 질서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사랑에 관해 말한다면 한계도 있다.

오토바이 정비공이자 철학자인 매튜 크로퍼드는 우리가 타인과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개인이 가진 '우월한 것'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분별함 없이 멀리서 투사되는 평등주의적 공감은 주의attention보다는 원칙에 입각해 있다. 대상의 인간됨을 목격하지 않고 상정하는 것에 만족한다. 하지만 이런 공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총칭적으로 인식되는 것 이상을 바란다. 그는 개인으로서 보여지기를 원하며 특정한 탁월성이나 기술을 연마함으로써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자 애쓴 바로 그 측면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한다. 우리 모두 구별되기 위해 애쓴다."고 말한다.

당신과 나는 우리의 다양한 기질과 배경, 재능과 관심사가 다양한 '공정의 척도'하에 온전히 평가받는, 진정으로 평등한 사회를 꿈꿀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누구도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절대 똑같이 질 수 없는 고유성을 위해 각자의 탁월함을 추구해간다. 그 분야는 물론 종이접기부터 감자전부치기, 발레에 이르기까지 무척이나 다양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와 진정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기 위해 어떠한 경우든 지극히 차별적인 존재가 되고자 꿈꾼다는 것이다.

일시
2022년 5월 30일, 오후 7시 30분-9시 30분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본 강연은 촬영할 수 없습니다.
*강연 후 발송하는 문자 설문문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도무지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도 타인의 외모와 성격과 태도를 '평등주의적으로', '공정하게' 환대하는 것은 우정과 사랑이 아니라 타인의 개인성에 대한 무시에 가까울 것이다. 우리가 교육, 노동, 정치참여 등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차별 없이, 우리의 보편적인 시민권과 각자의 역할에 비례하여 할당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비례적이기보다는 지극히 사소한 탁월성을 터무니없이 크게 확대해서 마침내 한 개인의 고유성에 완전히 빠져들고 마는, 반비례적인 무엇일 것이다.